

Style 1 조선일보

MARCH 2023
vol.250

TOD'S KOREA INC. 02 3448 8201



TOD'S



DIOR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는 2023 S/S 시즌, 이탈리아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부드러운 컬러가 돋보이는 모던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캐주얼한 장식 한 아이템은 패셔너블 실루엣의 드레스와 로사란 재킷이 돋보이는 아이코닉한 디자(D) 백으로, 토즈의 변화 없는 우아함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문의 02-3438-6008



- 12 **과짜 컬렉티브의 역할상이 낳은 현대랜드의 진면목은?** '경험 부자', '경험 수집 가'라는 표현이 있다. 지구촌을 누비며 쌓은 '경험의 조각들', 그 과정에서 접한 문화 예술 분야의 콘텐츠만 한정해서 보자면 재벌 부자라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 그런데 사실 '수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묘한 경계심도 든다. 제대로 채득도 못하면서 수집병에 걸려 스스로 심신을 파멸하게 하는 일은 피하고 싶다는 얘기도. 굳이 변경 아닌 변경을 하자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펼쳐지는 예술 애호가들의 성지로 여겨지는 복합 공간 모나MONA로 향하면서 표피적인 '경험 수집'의 태도를 내려놓고 결심했다. 시간이 부족해도 허둥지둥 말고 당장 '대안하는 것'에만 집중하자고 마음먹었고, 편견 방지 차원에서 사전 조사도 세세하게 하지 않았다. 미지의 세계로 우연히 들어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도 된 셈치고 말이다.
- 14 **무라카미 다카시와 마우리치오 카텔란을 논하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람객을 불러들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부산시립미술관의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중비)展(2023. 1. 26~3. 12, 1백60여 점), 그리고 리움미술관에서 매번 예약 창이 열리자마자 매진되는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WE)展(2023. 1. 31~7. 16, 38점). 한국 관람객 입장에서 놓치기 아까운 전시다. 하지만 그 자체로 미디어가 되는 전시의 실험성과 창조성이라는 것대로 보자면 두 전시 모두 아쉬운 점도 분명 있다. 새로운 화두나 의제를 날카롭게 던지는 작가의 '동시대적인 신무기'를 한국 전시에서 꺼내들기를 기대하는 건 과도한 바람일까? 전시 비평과 함께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공지능 챗GPT(ChatGPT)와의 대화도 시도해봤다.
- 16 **LOVE RED** 강렬하고 열정 넘치는 레드를 품은 주얼리 6.
- 17 **LADY DAY**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시그니처 워치 하나면 그녀의 룩을 완성하기에 충분하다.
- 18 **TIME OF CHALLENGE** 남성미와 우아함을 동시에 갖춘 대표 남성 스포츠 워치 컬렉션.
- 19 **TIME MASTER** 하이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컴플리케이션과 클래식하고 담백한 디자인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캘린더 워치 컬렉션.
- 20 **THE ESSENCE OF MILAN** 장인 정신에 기반을 둔 포델라토의 헤리티지와 밀라노의 디자인 정신을 존중하며 포델라토의 독보적인 스타일에 감이 더해지는 동시에 창의성의 한계를 확장해온 포델라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빈센조 카스틸로. 무려 20년간 브랜드와 함께해온 그의 감회와 소회를 들어보며 그가 확립한 가치와 역사를 되돌아본다.
- 22 **SPRING FIELD**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매력, 뉴 레이디 골프 웨어.
- 30 **THE UNIQUE** 럭셔리한 이미지와 헤리티지를 갖춘 대표적인 귀족 스포츠, 골프. 최고급 수입 원단을 사용해 소량 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세련된 하이 클래식 골프 웨어를 지향하는 브랜드, 파티티를 소개한다.
- 31 **2023 NEW ARRIVALS** S/S 시즌 신상 백과 슈츠 컬렉션.
- 32 **LIGHTS ON**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줄 빛나는 아이템, 조명.
- 33 **MAGICAL FRAGRANCE** 봄의 문턱에서 만나는 뉴 퍼퓸.
- 34 **EDITOR'S PICK** 싱그러움 에너지로 피부 속을 채우고 봄날의 향기를 더하는 3월의 뷰티템.

Style 조선일보

Issue.250 March 202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경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l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해·재판 리은 인세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DAMIANI

HANDMADE IN ITALY SINCE 1924



TASTE the Italian **EXCELLENCE**



DAMIANI.COM

DEEP COLOR

보문 불수목 백저드 레드 스톤의 매력. (위부터 차례대로) **다이아리 미모사 화이트 골드 루비** 화이트 골드 소재에 센터 스톤인 루비 주변에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해 반짝임을 부각한 미모사 모양의 링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프래드 프래디 우먼 인앤디시절** 화이트 골드와 핑크 하트 모티브가 강장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빨간 루비로 포인트를 더한 링 1천5백46만원. 문의 070-4732-0479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성영민**



완벽한 그녀의 시간

이리코낙한 까나주 그래픽 디테일과 하우스만의 기술력이 어우러진 디올 타임피스의 라 디미 다들이 새롭게 거듭났다. 오토 쿠틀러의 노하우를 기념하며 '시간을 알려주는 리본' 콘셉트로 완성된 스트랩에는 다이얼에서부터 이어지는 기하학적인 리본이 수직적으로 인그레이빙되어 다양한 형태와 깊이감의 조화를 드러낸다. 또 다이아몬드 세팅하거나 실크 소재의 섬세한 매력을 미세한 드로잉으로 구현해낸 케이스에서는 디올 하우스의 마스터 워치메이커들이 지난 열정과 혁신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골드 또는 실버 도금 스틸 소재에 19mm와 25mm의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되는 이 특별한 워치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손목에 더욱 우아한 품격을 더해준다. 전통과 혁신, 아름다움 미학과 대담한 감성을 결합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디올 아틀리에의 탁월한 매력을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구현해낸 놀라운 워치라 자랑할 수 있다. 문의 02-3480-0104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NEW WAVE

페라가모에서는 이번 2023 S/S 컬렉션부터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맥시밀리언 데이비스와 함께 작업했다. 그는 페라가모의 아이키브를 살펴보고 고유의 DNA를 현대적으로 재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페라가모의 새로운 백과 슈즈 아이템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엘리나 슈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세련되고 날카롭게 절제된 보디에 페라가모 로고 모양의 기하학적인 힐을 매치해 독특하면서도 관능적인 감성을 부여한다. 이 현대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의 슈즈는 다양한 컬러와 버전으로 출시하며, 앞으로 페라가모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될 것이다. 1백75만원대. 문의 02-3430-7854



FUN for NOW

각종작품 유니크한 세이프를 자랑하는 하우스 브랜드의 스페셜 백.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트랩을 장착해 슬더백으로 연출할 수 있는 골드 메탈 소재의 별 모양 미니디오로 백 가격 **사벨**. 문의 080-805-9628, chanel.com. 테이크아웃 용기 형태가 워트를 닮은, 메탈 YSL 시그니처 이셜 장식이 포인트인 송이자기족 소재 테이크아웃이 박스 가격 미정 **생 로랑 바이 인스티** **차비엘로**. 문의 02-6105-2228. 귀여운 코끼리 모양으로 완성한 송이자기족 소재 뉴겐디 컬러 엘리먼트 포켓 1백10만원 **로에베**. 문의 02-3479-1785 **포토그래퍼 박재용** 인턴 에디터 **신영민**



이탈리아 파인 다이닝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보칼리노가 현재의 맛과 맛을 풍부하게 반영한 '미식 여행' 프로모션을 올해 말까지 펼친다. 이탈리아 미식 가이드 '김베르 로소에서 '일 포코' 레스토랑으로 선정되기도 한 보칼리노를 이끄는 헤드 셰프 미르코 예르베는 북쪽과 남쪽, 해안과 산악, 평야 등 지역별 각기 다른 조리법과 먹거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미식을 제대로 누려볼 수 있도록 매일 한 지역을 선정해 여러 지역을 문소 경험하면서 지남 서프 자신의 추억을 담은 코스 메뉴를 선보인다. 예컨대 3월에는 나폴리와 폼페이, 소렌토 등의 도시들이 위치한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지역의 기쁨을 활용한 오보 요리, 튀긴 피자, 렘 바바 등을, 4월에는 이탈리아 북부 리구리아 지역의 특산물인 비살과 호두, 잣 등 견과류를 활용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또 5월에는 수도인 로마가 위대한 라치오 지역산 양 젖으로 만든 페코리노 치즈, 아티초크 등으로 만든 에피타이저부터 소고리짬 '코다 비치나라와 달걀 없는 카르보나라' 그리고 '리아 파스타'를 떠올릴 수 있는 요리 등을, 6월에는 친해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휴양지로 유명한 지중해 섬 시르데냐의 자연 친화적 요리 세계를 즐길 수 있다(구슬 모양 파스타 '프레골라와 어린이를 곁들인 랍스터 수프 등). 1인 3코스 8만5천원, 5코스 17만5천원부터(세금 포함). 또 보칼리노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한 인터넷 파스타 뷔페와 메인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런치 딜라이트' 세트도 선보였으며, 매주 월요일 저녁 '볼카지 피자' 행사도 진행 중이다. 문의, 예약 02-6388-5500 홈페이지 www.fourseasons.com/seoul

QUICK & EASY

영양 성분을 듬뿍 넣어 기본 전함용 미스트는 물론 더너 대용을 넣어 맥을 한 것과 같은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인스탄트 하이드레이션 미스트. (왼쪽부터 차례대로) **프래디 인스탄트 하이드레이션 미스트** 다마스쿠스 로즈 워터를 듬뿍 함유해 뿌리는 순간 피부를 급속하게 진정시키고 충분한 보습을 선사한다. 100ml 3만4천원대. 문의 080-822-9500 **실론 뷰티 피도 플루언트 에센스 미스트**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피도 플루언트 성분으로 세럼과 같은 효과를 주어 뿌리는 것으로도 피부에 보습력을 갖춘 듯 영양을 듬뿍 선사하는 미스트 100ml 3만8천원. 문의 080-246-1234 **라부렛 하이드라 피팅 씨 미스트** 장미수 성분을 함유해 피부결 정돈은 물론 수분 보습 효과를 주는 은은한 자연 향의 미스트 60ml 5만2천원. 문의 1644-449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영민** 어시스턴트 **신영민**

봄, 꽃의 축제
선물처럼 즐기는 이탈리아 미식 여행
서울에서 즐기는 이탈리아 미식 여행



선물처럼 즐기는 꽃처럼 입체적이면서 섬세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이끄는 빈드리프 아멜의 프라볼 컬렉션. 특히 요즘같이 따뜻한 봄날과 어울리는 주얼리 프라볼(Frivole) 링을 소개한다. 미러 폴리싱 기법으로 완성된 18K 골드에 세팅한 다이아몬드는 하트 모양의 꽃잎에 눈부신 광채를 더하고, 총 0.35카트의 라운드 루비를 꽃송이 3개는 서로 다른 높이로 배치되어 감미롭고 잔잔한 조화를 이루며 매혹적인 컬러의 우아함을 선사한다. 문의 1877-4128

BOLD MOVE

사람들의 스타일링 시한 콰터 패턴을 바탕으로 탄생한 코코 크라쉬. 심플하면서도 과감한 시드, 그리고 캄페리니한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사별 화인 주얼리의 대표작인 컬렉션이다. 페리니한 무드의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링과 커스 브레이슬릿을 선보였으며, 이듬해 시계 소유 컬렉션인 베이지 골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링을 출시하는 등 아이템 스펙트럼을 넓혔다. 부드러우면서도 클래식한 무드의 베이지 골드 브레이슬릿을 비롯해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 세팅의 화이트 골드 레이아웃의 유니크한 링을 출시하며, 모던함과 정교한 세련미를 유감없이 표현했다. 캄페리니 톤보이는 C 로고 디자인의 네크라스와 링, 이어링, 브레이슬릿의 네 가지 카테고리도 구성된 코코 크라쉬는 모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거나 한쪽 손목에 여러 개의 팔찌를 레이아웃하는 등 자신만의 자유로운 스타일링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진주의 재구성

티파니에서 잔 슬럼버제(Jean Schlumberger)가 1965년 선보인 대표 컬렉션인 버드 온 어 락(Bird on a Rock) 브로치를 재해석한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버드 온 어 펄(Bird on a Pearl)'을 선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천연 진주를 세팅한 이번 컬렉션은 티파니 마스터피스 유신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에-치와 생명을 불어넣는다. 각각의 진주는 걸프(The Gulf) 지역과 후세인 알 피단(Hussein Al Fardan)의 개인 소장품을 매입한 것으로 우수한 사이즈와 모양, 독보적인 개성감을 자랑해 높은 가치를 지녔다. 이 진귀한 진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자. 문의 02-6250-8620

GO CHIC

토즈에서 가장 구조와 디테일에 대한 정교한 연구의 결과물로 단정함 실루엣의 T 케이스 백을 출시했다. 섬세하고 깔끔한 라인에 토즈 장인들의 정교한 기법을 더해 이브닝 웨어뿐 아니라 캐주얼 스코틀랜드도 완벽한 포인트가 되는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정교한 플랩 디자인과 부드러운 레더가 자아는 특별한 세이프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양쪽 끝에 들어간 T 타일링 액세서리 외의 여타한 금속 액세서리도 사용하지 않아 가벼운 무게감을 선사하며, 섬세한 라인을 잡아주는 디자인 역시 포인트다. T 케이스 백은 특별하고 대담한 룩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포니 & 장미가죽 모델도 선보인다. 포니 레더 버전의 경우 레더 고유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잘게 없이 통기구를 사용했다. 장미가죽의 경우 기하학적 패턴의 세븐본 기법으로 재해설하기 보아지는 정교함이 돋보인다. 문의 02-3438-6008





아세이티드 소재의 부드러운
포라민이 혼용되는 미고 365원
바버리 by 에일로 룩스타가.

블라과 화이트 컬러의
패턴이 시트함을
연출하는 다들 북 토트
바티컬 폰 파우치
가격 미정 다들.

캐주얼 스포츠웨어를 좋아하는 나를
스타일링 할 때 애용하는 아이템은
바로 이거!

아이코닉한 FF 로고를
더한 파우치로 손이 자주
소재의 편다 파우치 이디
가격 미정 편다.

for her Selection

센스 있는 스타일링은 물론 편안한 착용감과 활동성까지 안겨줄
애슬레저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kim sa yun

신물성 오일과 천연 오일,
바티컬 고품질 불린팅에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구찌 볼 나리싱 유-베셀 얼티
유즈 밤 8g 7만7천원
구찌 뷰티.

청량한 느낌을 주는
총 41.17인치, 4개의
스카이 블루 토퍼즈를
세팅한 누도 다들
드롭 디자인
1천1백원
포탈로트.

캔버스와 스카우트로 견고하게
제작한 요기 매트리스 홀더 가격 미정
모나.

여성스러운 패턴을
가미한 스트랩이 손목을
우아하게 연출하는 드 빌
미니 트래저 퀵츠 26MM
1천1백70만원 오메가.

감각적인 프린팅이
우아한 느낌을 주는
프린팅 바티컬 드와 코르크
소재의 아프리카 리 바그 비치
라켓 가격 미정 에르메스.

경쾌한 패턴이 돋보이며,
폴리미이드 소재로 유연함을 자랑하는 스포츠웨어
브리탑 25만원대 포초 인타내셔널.

편안한 착용감이 자랑인 패셔너블
리네이티드 소재의 스니커즈
가격 미정 사넬.

심플한 무슬 자아는 18K 골드 소재의 헤링리
골드 비즈 브레이슬릿 (연속된 골드 반올림) 이펙트.

아이코닉한 로고와 컬러
매치가 개성과 귀여움을
더하는 로고 디테일의 블루-
그린-화이트 컬러의 블루-
스웨트셔츠 2백만원
이디스 X 구찌.

폴리에스터 소재로 뛰어난 착용감이
돋보이는 3 스트라이프 디테일의 디크 파플 GG
트래저워어 자저드 맨즈 1백93만원 이디스 X 구찌.

대형 패시워드기 패턴을
스타일링 1백50만원 코넬레.

몽클레르 080-311-0000 에일로 룩스타가 02-501-4436 밴디 02-544-1925
다들 02-3280-0104 구찌 뷰티 080-850-0780 포초 인타내셔널 en.ports-intl.com 사넬 080-805-9628
반올림 이펙트 1877-4128 오메가 02-3479-1417 포탈로트 02-6905-3342 모나 02-2254-4150
로에베 02-3479-1785 구찌 02-3452-1521 에르메스 02-542-6622

에르메스 오렌지, 놀라움의 컬러





쪽에 위트를 더해줄 비스 바바 Y7 34만원 **젠틀은스타**.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카트 스카 스페이드 스파츠 7억 4천 원 **브루엘로 쿠차텔리**.

비바드한 질감이 눈길을 사로잡는 중이카 가죽 소재의 피카부 아이비유 X-크로스 4백만원대 **젠디**.

2개의 0.53캐럿 오픈스톱 카르네이션 18K 핑크 골드 소재의 프레스션 오픈 밴글 브라이슬릿 3백77만원대 **파이에제**.

심플한 것을 전하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라지 판던트 6백만원대 **부세몬**.

3백만원대 모노그램 패턴을 연인 5백만원대 **제니 비올**.

자연스러운 면을 연출하는 면 소재의 V 로고 버킷 햇 40만원 **발렌티노**가 되버니.

벨트에 착용해 목에 포인트가 되어줄 로고 프린트 동전 지갑 259만원대 **디스케이즈**.

시크한 느낌의 스틸 케이스와 천연 고무 스트랩 매치가 돋보이는 삼자자를 워터타이프로 비양코 1천2백만원대 **파네라이**.

for him Selection

피트니스 센터로 향하는 길, 자연스러운 멋을 선사해줄 애슬레저 스타일링.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kim sa yun**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0.02캐럿의 브루엘로 컷 다이아몬드 5개를 세팅한 라지 에버윈드 워딩 밴드 3백만원대 **쇼페**.

유리창을 열어보 포인트를 자랑하는 스테이브로인팅이 돋보이는 1백만원대 **아르만시**.

양말과 신발의 매칭을 위한 7천원대 **디스케이즈**.



밴디 02-544-1925 **젠틀은스타** 1600-2126 **에르메스** 02-542-6622
 브루엘로 쿠차텔리 02-3479-1804 **파네라이** 1670-1936 **파이에제** 1668-1874 **쇼페** 02-3442-3359
 부세몬 02-3479-6028 **루이 비통** 02-3432-1854 **발렌티노** 가리버니 02-2015-4655
 디스케이즈 02-3479-1296 **구찌** 02-3452-1521 **다울 멘** 02-3280-0104 **사넬** 뷰티 080-805-9638

리치엔진 담그린 컬러와 자유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는 자수 V 네 나일론 스웨트셔츠 2백70만원 **발렌티노**가 되버니.

뛰어난 수성페라 내구성을 자랑하는 베이지나일론 디올 바이 마스터리 핸드 컬러가워터 백백 7억 4천 원 **디올 멘**.

유명한 유광 표면을 가진 100% 울 소재를 사용한 50도 섀도 스프레이 200원대 **샤넬** 발렌티노가 되버니.

My Persona The Touareg

플래그십 SUV 투아렉은 눈길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외관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인터페이스와 편안한 승차감을 위한 첨단 테크놀로지까지 과시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드러나는 당신처럼, 투아렉



온 & 오프 로드를 아우르는 편안한 승차감 | 4륜 조향으로 경험하는 탁월한 주행 편의성 |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지능형 제어 기능
에어 서스펜션 | **올 휠 스티어링** | **IQ.라이트**

가까운 전시장에서 투아렉을 경험해보세요.

[전시장]
 강남 대치 02-564-9800 강남 신사(City store) 02-516-0033 강북 미아 02-320-9630 동대문 02-2241-8888 목동 02-3660-9999 용산 한강대로 02-595-0070
 서초 02-588-3434 송파 02-6958-0800 한남(City store) 02-747-4300 부천 032-671-4700 분당 031-760-1800 수원 031-284-3030 구리 031-563-2292 안양 031-396-0801 일산 031-904-4400
 판교 031-696-0100 인천 032-471-6100 원주 033-737-6500 춘천 033-244-6400 천안 041-573-9993 청주 043-223-9944 대전 042-862-9944 전주 063-213-9500 순천 061-727-2345
 광주 062-351-9500 대구 053-767-1900 남천 051-611-5500 동래 051-926-5500 해운대 051-995-5500 창원 055-245-7788 포항 054-249-5000 제주 064-744-9200

[차종 및 표준 연비]
 Touareg 3.0 TDI Premium (8단 자동, 배기량 2,967cc, 공차중량 2,271kg, 복합 CO₂ 배출량 180g/km 복합연비 10.8km/l (도심 연비 9.6km/l, 고속도로 연비 12.8km/l), 4등급)
 Touareg 3.0 TDI Prestige (8단 자동, 배기량 2,967cc, 공차중량 2,271kg, 복합 CO₂ 배출량 180g/km 복합연비 10.8km/l (도심 연비 9.6km/l, 고속도로 연비 12.8km/l), 4등급)
 Touareg 3.0 TDI R-Line (8단 자동, 배기량 2,967cc, 공차중량 2,271kg, 복합 CO₂ 배출량 180g/km 복합연비 10.8km/l (도심 연비 9.6km/l, 고속도로 연비 12.8km/l), 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에어 서스펜션과 올 휠 스티어링 기능의 경우 투아렉 3.0 TDI Prestige, R-Line 트림에만 적용 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 판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Mona (Museum of Old and New Art)를 가다(하)

괴짜 컬렉터의 역발상이 낳은 윈터랜드의 진면목은?



2

“경험 부자”, “경험 수집가라는 표현이 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가난해지고, 나름 ‘열일’ 하며 버둥거린다고 해도 완만한 성장 곡선조차 타기 어렵다고 하는, 만물이 온통 비싸지기만 하는 듯한 요즘 세상에 그래도 지구촌을 누비며 쌓은 ‘경험’의 조각들, 그 과정에서 접한 문화 예술 분야의 콘텐츠만 한정해서 보자면 제법 ‘부자’라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 그런데 사실 ‘수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묘한 경계심도 든다. 타지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움직이게 되면 새로운 ‘경험 목록’을 만드는 데 빠져 정작 진지한 몰입은커녕 차분히 즐기지도 못하는 경우가 흔해진다. 제대로 체득도 못하면서 수집병에 걸려 스스로 심신을 피폐하게 하는 일은 피하고 싶다는 얘기가.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필자는 예술 애호가들의 성지로 여겨지는 복합 공간 모나(Mona)로 향하면서 표피적인 ‘경험 수집’의 태도를 내려놓자고 결심했다. 시간이 부족해도 허둥대지 말고 당장 ‘대면하는 것’에만 집중하자고 마음먹었고, 편견 방지 차원에서 사전 조사도 세세히는 하지 않았다. 미지의 세계로 우연히 들어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도 된 셈 치고 말이다.



3

장소 선정부터 공간 창출, 컬렉션 구성까지, 고정관념 탈피하기

지금이야 제법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지니고 있으니 ‘멋진 풍경’이라고 치켜세우곤 하지만, 일단 모나의 위치 선정부터 ‘외외의 파격’이라고 할 수 있다. 남반구의 거대한 섬나라 오스트레일리아 최남단으로 남극과 가까운 테즈메이니아의 주도(州都)인 호바트 도심에서 다시 페리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외딴 마을 베리데일(Berriedale). 월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 근처로 인구 1천2백 명 정도(2023 기준) 되는 그야말로 작은 시골 마을이다. 지난 호에서 소개했다시피 1961년생인 월시는 도박으로 돈을 긁어모아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된 인물. 사실 모나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필자는 그를 그저 타짜 같은 승씨를 지닌 신이 내린 도박꾼으로만 알았다. 여행 저술가 빌 브라이슨의 책에 지구상에 있는 슬롯머신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박가라는 내 용이 있듯(저자도 신문에서 읽었다고 했다)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거니 했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저널리스트와 우연히 ‘모나’ 얘기를 나누다가 그가 테즈메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Tasmania)에서 수학과 컴퓨터 전공을 하다 중퇴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개발한 ‘도박’ 알고리즘 시스템의 덕을 톡톡히 본(아마도 지금도 수혜를 입고 있는), 여러 면에서 천재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게 됐다. 도박에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는 아트 컬렉터로 전향(?)한 그가 못 말리는 괴짜라는 건 이미 눈치챘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모나의 독특한 면면은 그저 남들과 비슷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차원에 머무른 결정은 아니었다. 미술에 대한 애정 역시 어느 날 번쩍처럼 찾아온 게 아니다. 월

시는 어릴 적부터 테즈메이니아 미술관을 다니면서 그리스 유물과 유적 등에 애정을 느껴왔고, 어떤 공간을 창출하고 싶은지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신념도 꾸준히 키워왔다. 원래 와이너리와 작은 전시 공간을 뒀다가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단행한 끝에 2011년 초 본격 문을 연 모나의 지향점은 뭘한 어찌 힘을 빼는 것이 있었다. “그(월)시는 전형적인 미술관이나 아트 센터의 진지한 무게와 권위를 제거하고, 관람자를 설명(가르침)의 횡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했어요.” 영국의 문화 인류학자 애드리언 프랭클린(Adrian Franklin)은 모나를 창조한 과정에 대해 쓴 책에서 이렇게 밝혔다. 고고한 권위 의식 따위는 버린 비전형적인, 그러나 압도하지 않는 ‘공간에서 몸소 공간을 경험하고 작품을 느끼면서 어러둥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싶어 했다. 실제로 모나 단지 내에는 와이너리와 숙박 시설, 미술관 등 건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그리고 놀랄게도 한가운데 테니스장이 있다), 나름 흥미로운 외관 디자인도 눈에 띄지만 결코 화려하거나 위압적인 위용을 자랑하지는 않는다. 모나 걸을 흐르는 테넌트강과 산을 품은 탁 트인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주 전시장을 둔 미술관 건물이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파로(Paro)와 ‘빛의 거장’으로 불리는 현대미술가 제임스 터렐의 여러 설치 작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외포보형식의 건축물인 페로(The Pharos) 영 역시 저층 건물에다 위로 솟는 게 아니라 지하로 숨어버리는 구조를 택했다. 내부 디자인도 화이트 큐브의 정형성 따위는 내다버린 듯 음습한 동굴이나 비정형의 콘크리트 감옥 같은 분위기, 혹은 신비로운 기운을 머금은 공간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마주치는 작품의 구성 역시 범상치 않다. 아마도 모나를 상징하는 주제 ‘섹스와 죽음’이어서일까?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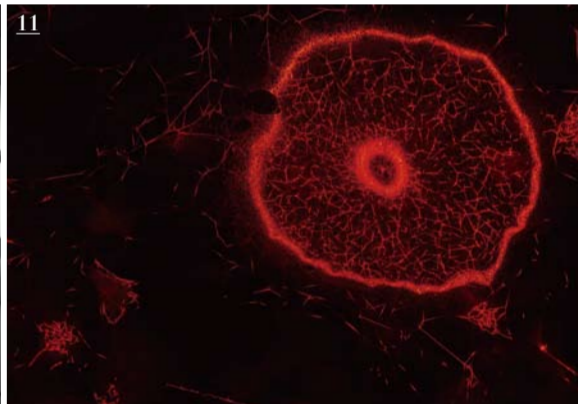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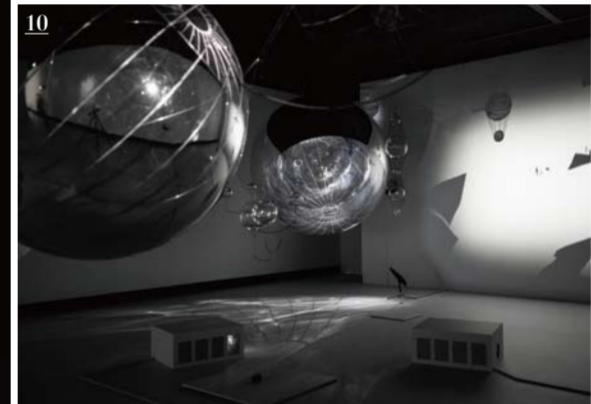


8



9

1 콘서트 중심가에서 자동차나 전용 페리로 20~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모나(Mona). The Museum of Old and New Art (Mona) Photo credit_Mona/Jesse Hunnford. Image courtesy of Mona, Hobart, Tasmania, Australia. 2 입구가 있는 천면 파사드가 거울로 덮여 있는 모나아트 센터 단지 내 미술관주 전시장 입구. 원래 건물은 로이 그라운즈 경(Sir Roy Grounds)의 설계로 지어졌다. 외 +는 모나의 로고이며, 이 미술관의 큰 주제는 ‘sex & death’다. 3 모나 미술관은 단층이지만 나선형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3층까지 펼쳐진 전시 공간으로 이어진다. 4 Steam Tunnels, Museum of Old and New Art, 모나 단지 내 미술관과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전시 공간 등을 둔 또 다른 건물인 페로(The Pharos) 영 등을 연결하는 터널. 5 랜디 폴럼보(Randy Polumbo)의 작품 ‘Grotto’(2017). 색스 토이에 흔히 쓰이는 유리 소재의 설치 작품이다. 6 미술관 지하 1층에 전시된 작품들. with Crucifix, 1965, Sidney Nolan; The Naked Studio, 1981, Brett Whiteley; Vitalis, 2007, Toby Zeigler. 7 현재 이브엔터나 출신의 세계유명 현대미술가로 예술과 건축, 자연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토마스 사라세노(Tomás Saraceno)의 ‘Oceans of Air’(공기)에서 진행 중이다(아오는 7월 24일까지). Aerocone 2.5, 4, and 5, 2019, Tomás Saraceno. Courtesy the artist with the Aerocone Foundation, neugerriemschneider, Berlin and Tanya Bonakdar Gallery, New York / Los Angeles. 8 Silent Spring, 1805/2021, 2022, Tomás Saraceno. Courtesy the artist, neugerriemschneider, Berlin and Tanya Bonakdar Gallery, New York / Los Angeles. 9 Webs of AI-Intelligence, 2022, Tomás Saraceno. Courtesy the artist with Arachnophilia, neugerriemschneider, Berlin and Tanya Bonakdar Gallery, New York / Los Angeles. Photo Credit_Tomás Saraceno. Image Courtesy Studio Tomás Saraceno and Mona (Museum of Old and New Art), Hobart, Tasmania, Australia. 10 A Thermodynamic Imaginary, 2022, Tomás Saraceno. Courtesy the artist, neugerriemschneider, Berlin and Tanya Bonakdar Gallery, New York / Los Angeles. 11 How to entangle the universe in a spider/web?, 2022, Tomás Saraceno. Courtesy the artist with thanks to Arachnophilia, neugerriemschneider, Berlin and Tanya Bonakdar Gallery, New York / Los Angeles. 12 제임스 터렐의 빛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는 Unseen Seen(2017) 전시 공간 입구. photo by SY Ko 13 제임스 터렐의 여러 작품과 리처드 월스의 ‘20:50’이라는 설치 작품, 그리고 수려한 전경을 자랑 파인 다이닝 공간 등이 들어서 있는 페로 강과 건물 위로 펼쳐진 전경. * 2, 3 Photo credit_Mona/Rémi Chauvin. Image courtesy_Mona, Hobart, Tasmania, Australia. * 4-6, 13 Photo credit_Mona/Jesse Hunnford. Image courtesy of the artist(artists) and Mona, Hobart, Tasmania, Australia. * 7, 8, 10, 11 Photo Credit_Mona/Jesse Hunnford. Image Courtesy Studio Tomás Saraceno and Mona (Museum of Old and New Art), Hobart, Tasmania, Australia.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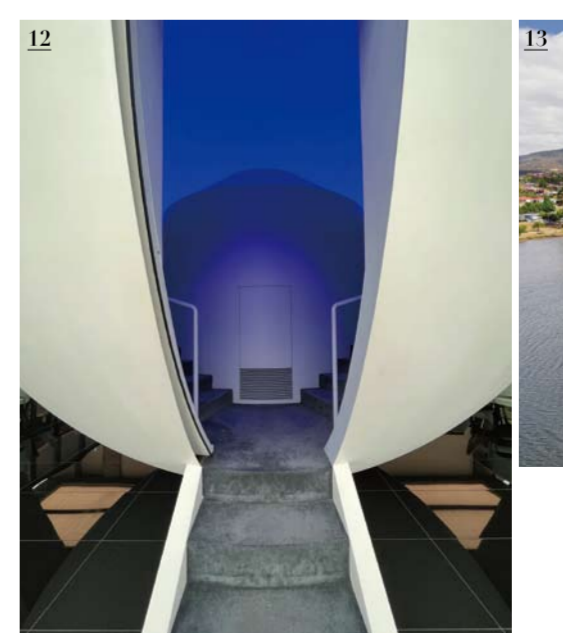
모나 브랜드, 빼어난 콘텐츠와 경험 디자인의 조화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작가들이 그런 거지. 그들의 작품이 다 ‘섹스와 죽음’에 관한 것이니까요.” 울 초한 해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데이비드 월시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맞는 말이다. 넓게 보면, 현대미술의 주제가 이 두 가지 키워드와 접점을 갖지 않기도 힘들다. 물론 그의 소장품(월시는 3천 점 정도의 소장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 수백 점의 작품을 번갈아가며 전시한다)을 찬찬히 보노라 하면 취향 역시 ‘예사롭지’ 않은 듯 느껴지지만 말이다. 모나에는 관람객용 안내 책자는 물론 작품 배치도 같은 종이 가 한 장도 눈에 띄지 않는데(월시의 자전적 얘기를 담은 책과 도록 등을 파는 서점은 있다), 이는 이미 편견 어린 렌즈를 착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배려(?)에서 나온 경험 디자인의 한 요소로 여겨진다. 하지만 일단한다면 ‘O’라는 앱을 깔아 즉석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필자는 서두에서 밝혔듯 이번에는 사전 정보를 차단한 채 감상해왔다). 미학적 개성만으로 바로 눈치를 채기도 했던 거장이나 스타 작가(아이웨이 웨이, 크리스 오펜리, 시드니 놀런, 빌 뎀보예, 에르빈 부름 등)의 작품과 더불어 작가의 이름값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높은 수위의 다양한 작업도 재치 있게 섞여 있는 재미난 구성이었다(뻘뻘한 면이 없진 않았다). 단테의 <신곡(The Divine Comedy)>을 제목으로 삼은 알프레도 자르(Alfredo Jaar)의 설치 작업이 놓인 공간을 비롯해 사전 예약 없는 감상이 불가능한 전시장도 있다. 그중 단연 최고의 인기는 제임스 터렐의 작품들. 빛의 미학을 온 감각으로 느껴보는 ‘이벤트 호라이즌(Event Horizon)’같이 세계 다른 도시에서도 접할 수 있는 유형의 터렐 작품도 있지만, 모나에서만 경험해볼 수 있는 ‘Weight of Darkness’라는 작품도 있다(빛과

어둠이 대비되는 구성인 셈이다). 사실이 같은 대가들의 ‘커미션’ 작품을 들여놓는 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어쩌면 ‘도박사’ 이미지 탓이었을까?) 일례로 월시는 제임스 터렐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계속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그런데 터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웨이커 학교가 호바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결국 모나로 향했고 자신의 작품이 놓일 공간 디자인에도 직접 참여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터렐은 독실한 웨이커교 신자다). 프랑스 현대미술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작가의 24시간을 녹화한 ‘개인 아카이브’를 남기는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와 월시 둘 다 장기간 넘치는 캐릭터라 볼탕스키의 사망 시기를 놓고 내기를 했다(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볼탕스키는 생전에 이미 내기에 졌다).

이렇듯 ‘뻘뻘한 듯 뻘뻘하지 않음’을 추구해온 배경 있는 결단과 통 큰 투자 덕에 모나는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해 온다(2011년 오픈 이래 4백만 명 가까이 찾은 것으로 추산

된다). ‘모나’라는 브랜드의 우산 아래 월시가 바랐던 지루하지 않은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팬데믹의 강타로 한동안 모나도 문을 닫거나 단층 운영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시 정상 궤도로 들어섰다. 그저 ‘괴짜 천재’의 일탈 같은 취미로 보기에 모나라는 공간의 면면에서 분명 예술에 대한 소신과 진심이 묻어난다. 게다가 월시는 자신이 경이로운 수준의 감부는 아니라고 공공연히 말하지만(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역만장자’까지는 아니라고) 모나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 모양새다. 토마스 사라세노 같은 동시대 가장 흥미로운 작가들과의 기획전은 물론 커미션 작업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기에 ‘under construction’ 시인이 곳곳에 붙어 있다. 현대미술계의 또 다른 세계적 거장 안젤름 키퍼의 작업이 들어설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다만 필자의 ‘최애’ 작가 중 하나다). 유유히 물결을 가르는 모나 전용 페리를 타고 호바트 중심가로 들어가는 길에 아무래도 다시 외아겠다고 결심해본다. 글 고정연



12

13



ROBOTIC

+챗GPT와 '맛짱 토론'

무라카미 다카시와 마우리치오 카텔란을 논하다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미술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부쩍 커졌다는 사실은 때때로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북미는 전시장 풍경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열기를 더 힘차게 이어가듯, 올 초부터 미술계에서 동시대를 상징하는 동양과 서양의 스타 작가들 각각 내세운 두 전시가 문화 예술계를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람객을 불러들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의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쵸비>展(2023. 1. 26~4. 16, 1백60여 점), 그리고 리움미술관에서 매년 예약 창이 열리자마자 매진되는 이탈리아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WE>展(2023. 1. 31~7. 16, 38점이다. 흥미롭고 풍부한 커리어를 아우르는 개인전답게 둘 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사하는 데다 무료 관람이라 화제성이 더 만발한 듯싶다. 한국 관람객 입장에서 놓치기 아까운 전시다. 하지만 그 자체로 '미디어'이 되는 전시의 실험성과 창조성이라는 잣대로 보자면 두 전시 모두 아쉬운 점도 분명 있다. 새로운 화두나 의제를 날카롭게 던지는 작가의 '동시대적인 신무기'를 한국 전시에서 꺼내 들기를 기대하는 건 과도한 바람일까? 특히 '악동'이라 불릴 정도로 재기와 파격이 넘치는 작가들 아닌가. 우리 미술계를 둘러싼 담론이 보다 활발하고 다채롭게 전개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전시 비평과 함께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와의 대화도 시도해봤다. /편집자주

TAKASHI MURAKAMI

#A.Q.로는 정점이 있는 무라카미 다카시

1990년대, 오타쿠를 자처하던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 1962~)는 독특한 일본 문화 현상과 미술을 합체해 '니폰 팝(Nippon pop)'을 이끌었다. 그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슈퍼플랫(Superflat)'은 2001년 열린 미국 순회전의 제목이기도 하다. 애니메이션, 게임과 예술, 저급문화와 고급문화, 전통과 현대 등을 한데 모아 유압 프레스로 누른 듯, 계급이나 취향도 해체해 평평하게 만든다. 나라 요시토모(Yoshimoto Nara) 같은 작가들이 합류해 귀여우나 피기스럽고, 순수한 아이지만 인간의 사악함을 표출하는 등 평면적 분열 증세를 창출한다. 미술 평론가 사와라기 노이(Noi Sawaragi)는 일본의 네오팝(neo-pop)이 스킴조프레니아(schizophrenia, 정신분열증)적이라고 규정한다.

진정한 MZ 세대 벤처 투자자로 꼽히는 나탈리 프라토(Natalie Fratto)는 TED talks(2019)에서 중요한 건 I, Q나 E, Q가 아니라, A, Q(Adaptability Quotient, 적응 지수)라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무라카미는 A, Q에 있어 아시아 미술계에서 단연 독보적이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태에, 시와라기 노이는 '전후(戰後) 미술'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닌, '재후(災後) 미술'(2011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말했으며, 지질학과 관련해 대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흔들린다고 한다. 이제는 '재후 미술'도 지나 'NFT-AI 미술'로 넘어갔다. '전후 미술'과 '재후 미술'에도 잘 적응했던 무라카미는 자신은 "NFT 미술계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고 있으며... 1, 2세기 뒤에 또 내 작품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NFT 예술을 창조하겠다"고 선언

포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1백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이번 부산 전시의 '정신분열적인 키워드 중 2개는 귀여움(가와이)과 기괴함(가키아)'이다. 공교롭게도 현재 NFT의 주류 중의 하나가 귀엽거나 기괴하거나. 2022년 그가 1백8개의 NFT '콜리위(kaikai kiki)' 씨앗을 오픈씨(NFT 거래 플랫폼)에 내놓자마자 거래 규모 상위 5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사실 요즘 현대미술계에서 AI나 컴퓨터에 대한 의존이 과학히 느껴질 정도의 표현 방식이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는 솔직히 무라카미 다카시를 선택해둔 일본 후배 작가들이 부럽다. 그는 철저히 일본적인 것을 세계화했다. 그 성공의 이유를, 그는 자신의 저서 <예술기업론(芸術企業論)>에서 일본적인 것을 서양 미술사의 문법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주변에는 동료 작가는 물론 후배 작가들까지 함께 세계적인



3



6

작가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전통은 귀히 여기나, 바뀌는 시대에 적용할 수 있고(A, Q),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동료, 후배 작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가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힘이 더해지면서 전쟁터 같은 현대미술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무라카미 다카시의 말처럼, NFT는 어쩔 수 없는 미래인데, 한국 대가들 중에는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끌어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쉽다.

#'동훈과 준호'에게 동전을...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 1960~)은 너무 비뚤던 것일까, 아니면 아이디어가 부족했던 것일까? 후자는 아닌 것 같다. 그는 스스로 "아이디어가 없거나 깨울러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할 때마다,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 같은 사례 중 하나가 일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1993)라는 작품이다(그래서 그가 위와 같은 말을 할 때는 '선전포고'같이 느껴질 정도다). 2011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전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회고전이러는 이번 리움 미술관 전시에서는 1990년대 초기작부터 최근 회화작 등 작가의 커리어를 관통하는 주요 작업을 접할 수 있다(총 38점). 그런데 새로운 작품을 없었다. 카텔란이 2개의 뒤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신개념 미술(Neo-conceptual Art)'의 대표 주자여서다. 개념 미술가는 새로운 개념을 전시해야 신작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2019년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서 행된 예술가 테이비드 다투나가 평범한 바나나를 텃 테이프 벽에 붙인 카텔란의 작품인 '코미디언(Comedian)'을 먹여버리는 퍼포먼스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이 작품은 리움 전시에서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시든 바나나를 먹였을 뿐이지, 1억4천만원짜리 개념을 먹여치운 건 아니다. 그래서 '코미디언'을 판매할 때는 바나나가 아니라 작품의 개념이 담긴 '양중서'를 준다. 이번 리움 전시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는 '노숙자 시리즈'가 있다. '동훈과 준호'라는 제목의 작품이지만, 오리지널 버전은 1996년 작 '안드레아스와 마피아(Andreas e Mattia)'다. 당시 이를 진짜 노숙자로 오해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 뒤 또 다른 버전들에는 다양한 시위에 이 노숙자를 잡으시겠다고 한다. 작품과 관련된 이 같은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동훈과 준호'는 다시 전시되지도, 언급되지도 않을 것 같다. 카텔란 어머니의 밀랍 모형이 냉장고에 들어 있는 '그림자도 2023년 작이지만, '벳지(Betsy, 1999)'의 다른 버전일 뿐이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외국 작가들이 한국에서 전시할 때, 전시를 위해 제작한 작업이 그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남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전시를 할 때, 한국 미술계의 해당 전시가 언급됐으면 좋겠다. 두 세계 미술계에 새로운 논쟁 거리를 제공한 카텔란의 행보를 지켜봐왔기에 기대가 컸던 때문일까? 왠지 작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프리즈(Frieze) 아트 페어를 보듯, 김이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동훈과 준호' 돌아가보자. 이 시리즈 중 하나는 외부에서 미술관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다른 하나는 전시장 안 1층 로비의 커다란 원기둥 앞에 설치되어 있다. 노숙자는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한 남부 유럽에 많다. 리움의 노숙자는 서울의 주변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한국형 노숙자들과 뭔가 달라 보인다. 그가 한국 노숙자를 만나 "는 봤을까? 개념 미술이기에 더더욱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 했던 건 아니었는지... 이렇게 의구심이 쌓이는 와중에 '노숙자'가 등을 지고 앉았다는 로비 가동에 입혀진 이미지가 시야를 잡아준다. 거대한 코르크 마개로 입을 틀어막은 화이트칼라의 남성 이미지(Untitled, 2000)는 숨 막히게 다가왔다. 마치 내 입도 코르크 마개로 막아버릴 듯 말이다. 한데 가동 바로 앞에 노숙자, 즉 사회 적 약자가 앉아 있으니, 자연스럽게 두 작품이 연결된다. #MeToo 운동, 10·29 참사, 학교 폭력 등이 스티고 지나간다. 두 작품의 생경스러운 배치와 자아내는 효과리나. 갑자기 카텔란한테 허를 찔린 것만 같았다.

MAURIZIO CATTELAN



8



9



6 리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개념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WE> 전시 풍경이다. 로비 가동에 있는 이미지부터, 2000년 2000년 미술 잡지 <아트마켓(ArtMarket)>에서 처음 선보였는데 디디컬 프리트, 흰 셔츠와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어떤지 이미 인식을 중시하고 승용차집 듯한 남성의 입에 코르크 마개로 물려져 있다. 7 동 앞의 높은 일곱 있는 노숙자 시리즈의 작품명은 동훈과 준호(2023).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노숙자를 직면하도록 하는 동시에 미술관에 들어가게 주변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에 도전한다. 7 리움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개념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WE> 전시 풍경. Courtesy of Maurizio Cattelan, 사진 김경희 Kim Kyounghee, 이탈리아 작가 그라친 바우에 걸린 원형 카펫에는 FORMAGGIO DEL BEL PAESE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포포파오는 이탈리아 국민 치즈 브랜드이고 벨 파에제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표현. 1994년 전사(死)를 당시엔 관람객들에게 짓밟혀 일복투성이가 됐던 이번 전시에서는 아름다운 나라를 소멸하는 상상의 논리라고 비판한 한국 기자 정재성을 반영해 발자 못하도록 삼켰다. 8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아돌프 히틀러의 얼굴을 한 남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언젠가 상흔한 카텔란의 작품 <그(2001)>. 히틀러는 세상에 없었지만 학살의 역사가 도를이든 우리네 현실을 자각하게 만든다. 9 마우리치오 카텔란, 이탈리아 세라(1999). 운상에 맞아 붉은 카펫 바닥에 쓰러져 있는 요한 바오로 2세 작품 제작 당시의 교황의 모습이 사뭇 강렬하다. 사회적 관행과 질서, 권위와 신념을 재고하게 만든다. * 6, 8, 9 photo by SY Ko

#챗GPT가 펼친 두 작가의 가상 논쟁

이 글을 쓰면서, 필자는 챗GPT와 마우리치오 카텔란과 무라카미 다카시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했다. 챗GPT의 사전 학습된 데이터가 2021년 9월까지 한정되어 있던 터라 두 전시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 최종적으로 필자는 챗GPT에 카텔란과 무라카미, 두 작가가 펼치는 가상 논쟁을 요청했다.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 카텔란: 당신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업은 우리가 사는 허전한 소비문화에 반영합니다. 무라카미: 나는 우리 현대 사회의 기술이 모든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위대한 의미나 메시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출고도 영감을 위한 것입니다. 카텔란: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의 작품은 실질적인 깊이와 영향력이 없습니다. 무라카미: 그것은 당신의 예술은 총구적인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빈 공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카텔란: 나의 예술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주변 세계를 의심하도록 도전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불행한 행태를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깨닫게 합니다. (...) 내가 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뒤엎고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품은 그저 한낱 사회의 물려주어진 면만 보여줍니다. 무라카미: 마우리치오, 내 작품은 현대 세대가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입니다. 카텔란: 나는 예술이 강의를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되는 논쟁)

챗GPT는 필자에게 "당신의 해석도 다양한 해석 중 하나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격렬한 논쟁 뒤에 두 챗GPT는 항상 외교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챗GPT: 마우리치오 카텔란은 자신의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주변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하고, 도전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무라카미 다카시는 예술이 현대 세계의 모든 복잡성에 대한 찬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 결국 카텔란과 무라카미의 논쟁은 예술은 주관적이며, 이를 접근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 카텔란과 무라카미 같은 예술가들이 있는 한, 예술의 세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장하며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것입니다.

글: 김은복(Sim Eunlog Meta Lab 연구원) · 챗GPT 공동 집필 Edited by 고성연

* 단순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려줄려고 하면 알려주지만, 창의적인 정보가 없다면, 문제는 챗GPT가 학습을 하고 오답을 할 때, 유저가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다. 결국 유저가 챗GPT의 사용이나 한계를 알고 사용한다면 이 같은 오류가 반복되고, 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강박관념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5

Lady Day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시그니처 위치 하나면 그녀의 룩을 완성하기에 충분하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샤넬 워치 J12 워치 칼리버 12.2** 지름 33mm 화이트 세라믹과 스틸 소재 케이스, 화이트 다이얼에 매치한 심플한 숫자 인덱스와 핑크로 사벨 클러쉬의 정수를 보여준다. 사이징은 정자인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기계식 셀프 와인딩 메뉴팩처 칼리버 12.2를 탑재해 놀라운 워치메이킹 기술력까지 더해졌다. 1천2백만원대, 문의 080-805-9628

에르메스 워치 케미프 코드 1991년 첫선을 보인 이후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의 위치로 자리매김했다. 가로세로 23mm의 작고 슬림한 사이즈의 케이스와 은은한 핑크 컬러의 아테나 카프 스트랩이 여성스러운 무드를 지니내며,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오메가트 빌 프레스티지 코-엑시컬 마스터 크로노미터 지름 34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은은한 블루 그레이 다이얼 컬러가 돋보이는 모던한 스타일의 여성 워치로 아라비아숫자 인덱스와 11·1·3·5·7·9시 방향의 다이얼은드 이워 마커가 우아함을 더했다. 블루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컬러에 통일성을 부여했다. 6백60만원, 문의 02-6905-3301

비세몬 콘스탄틴 페트리오니 셀프 와인딩 1957년 비세몬 콘스탄틴 특유의 클래식한 라운드 형태와 올트라-신 스타일 케이스로 잘려지고 세련된 무드를 지니내는 대표 여성 워치다. 지름 36.5mm의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에 핑크 스트랩을 매치해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고, 베젤에 다이아몬드

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인하우스 칼리버 2450 06/3로 구동한다. 5천2백만원, 문의 1877-4306

블랑팡 레이디버드 칼리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리운드 무브먼트를 탑재해 워치메이킹 부문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던 브랜드 시그니처 워치로, 2022년 다양한 컬러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도록 재출시되었다. 지름 34.9mm 레드 골드 케이스에 MOP 다이얼로 우아함을 부여하고, 베젤에는 다이아몬드 세팅해 화사함을 더했다. 블루 엘리자비타 스트랩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며,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3천2백만원대, 문의 02-3467-8426

피아제 홀로 데이트 브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워치.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스폰티하고 캐주얼한 감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지름 36mm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 버전으로 각색 있는 자르메시도 클래식하게 매치할 수 있다. 기묘 세 장식의 화이트 오발 컬러 다이얼에 약 0.977캐럿 블루라이트 컷 다이아몬드 60개를 베젤에 세팅해 여성스러운 무드를 준다. 피아제 메뉴팩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500P1으로 작동한다. 7천50만원, 문의 1668-1874

소피드 해피 스포츠 딥 블루 컬러의 다이얼과 스트랩이 목에 포인트를 더하는 디자인. 지름 36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핑크 컬러 로마자자와 인덱스를 매치해 특별함을 더하고 크라운은 0.17캐럿 사파이어로 완성했다. 다이얼에는 브랜드 시그니처인 0.24캐럿의 무빙 다이아몬드 57개를 넣 어 아름다운 움직임을 표현했다.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1천42만원, 문의 02-6905-3390 에디터 **성정민**

(위부터 차례대로) **타피니 앤 코 타피니 T 루 스를 펜던트** 애종의 상징적인 T 모티브를 표현하면서 카날리안의 선명한 컬러를 기차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준다. 18K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빈클리프 아펠 럭키 애플 플립 클립** 귀여운 여우 모양의 브로치는 18K 옐로 골드 소재이며, 전체적으로 카날리안을 사용해 레드 컬러를 표현하고 꼬리 부분만 화이트 머더오브밀로 포인트를 주었다. 눈은 오픈스로 마무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1877-4128 **프레드 상스 인피니 아이빙** 오묘한 레드 컬러의 루비를 파베 세팅했으며, 총 1.16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핑크 골드 소재의 아이빙. 아이코닉한 인피니 디자인이 단정하면서도, 6백78만원, 문의 070-4732-0479 **부셀메티 오베라 플레 워** 애종의 로고와 달은 오베라 플라워 워치 모티브가 매력적인 자태와 고급스러움을 준다.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플라워는 레드 에-멜로 완성했다. 7백만원대, 문의 02-6905-3490 **소메 주드 리앙 하모니 카날리안 브레이슬릿** 완벽한 조화를 상징하는 원형은 카날리안 소재로 특히 손목 위에 안착했을 때 돋보이는 컬러감을 자랑한다. 18K 핑크 골드 소재가 레드 컬러와 잘 어울리며, 0.06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총 10개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2백만원대, 문의 02-3442-3359 **소피드 해피 하트 아이빙** 아이코닉한 하트 안에서 움직이는 무빙 다이아몬드인 해피 다이아몬드와 꽃잎을 형상화한 하트 모티브가 만나 시크하고도 세련된 여성미를 발산하는 아이빙. 로즈 골드 소재이며, 레드 카날리안이 화려함을 선사한다. 1천1백37만원, 문의 02-6905-3390 에디터 **윤지영**



Love Red

강렬하고 열정 넘치는 레드를 품은 주얼리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Time of Challenge

남성미와 우아함을 동시에 갖춘 대표 남성 스포츠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파라데이 삼바**를 **퀵리퍼**로 **카보네트™ 블루** 이버슬 파라데이의 수중 모험 DNA를 그대로 적용해 스포티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디자인. 지름 44mm 카보네트™ 케이스에 딥 블루 컬러의 다이얼과 라바 스트랩을 매치했다. 0광 차틴아워 미카와 도트 로 가독성을 높였으며, 3시 방향에는 날짜창, 9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즈를 배치해 컴플리케이션을 완성했다. P.900 칼라바를 탑재한 오토매틱 기계식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2천2백만원대. 문의 1670-1936

리처드 밀 오토매틱 스텔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생체 친화적이며 매우 가벼우면서도 내부식성이 뛰어난 5등급 티타늄 소재의 단단한 합금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립한 무브먼트와 카본 TPT 소재 케이스를 장착했다. 직경에 44, 5X49, 94X16, 1mm의 큰 사이즈에도 스포티하고 가볍게 쓸 수 있도록 돕는다. 로보틱 차단 기술로 탄생한 FMAC4 칼라바로 작동하며, 스텔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는 마치 자동차의 가이 박스처럼 작동해 예치 소모를 방지해 낮추고 효율을 높였다. 가격 미정. 문의 02-512-1311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크로노스코프 쿼츠-엑시엄 마스터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스텔릿 마스터 제작한 지름 43mm 케이스에 블루 컬러의 타카 미터 스케일, 플스마터 스케일, 그리고 텔레미터 스케일까지 세 가지 특징적인 타이머 스케일을 탑재한 다이얼을 매치해 스포티한 감성을 물씬 풍긴다. 9시 방향 날짜 창과 스몰 세컨즈 카운터와 3시 방향 날짜 창과 60분 및 12시간 카운터로 구성되어, 오메가 쿼츠-엑시엄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라바 9900로 구동한다. 1천2백70만원. 문의 02-6905-3301

IWC 파우렐 워치 크로노그래프 지름 43mm의 스텔릿 마스터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을 매치했으며, 3개의 스몰 세컨즈와 날짜창을 총출해 매치해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자체 제작 무브먼트 68385 칼라바로 구동하며, 4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Easy-CHANGE 스트랩 체인 시스템으로 쉽게 다른 스트랩으로 교체 가능해 효율적이다. 1천1백50만원. 문의 1877-4315

블랑팡 피피티 페이즈 오토매틱 다이얼 워치의 대표작으로 디자인과 기능에 스포티한 감성이 듬뿍 담겨 있다. 울 블랙의 스텔 케이스와 스트랩은 남성적인 미를 선사하고, 블랙 다이얼에 매치한 아랍의 광자판인 옴레스는 가독성을 높임과 동시에 강한 느낌을 준다. 칼라바 1315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무려 1백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30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2천1천원대. 문의 02-3479-1833

브레게 마린 크로노그래프 5527 기존 브레게 마린 컬렉션에서 스포티한 세련미를 구현하는 동시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한층 더 재해석한 타 임피스르 블라야백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추었으며, 대형 센트럴 핸드로 측정된 시간을 표시한다. 지름 42.3mm의 18K 골드 케이스가 우아한 남성미를 부여하며, 3시와 9시 사이에 위치한 3개의 카운터가 분, 시, 스몰 세컨즈를 완벽하게 표현하면서 미적 완성도를 높였다. 블랙 라바 스트랩을 매치해 스포티한 감성을 더했다. 4천8백만원대. 문의 02-3467-8335

소피노 워터proof 이글 XL 크로노 현재 소피노 공동 대표인 캄-프리드리히 슈펠리가 1980년에 처음 디자인해 출시한 생크로노 워터proof 시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지름 44mm의 루벳트 스텔 A223으로 제작한 케이스에 브렌드의 감성을 담은 고유한 일렉트릭 블루 컬러 다이얼과 스트랩을 매치해 스포티한 느낌은 물론 은은하고 우아한 감성까지 더한다. 블라야백 기능을 갖춘 크로노미터 인종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3천8백만원. 문의 02-6905-3390 에디터 **성정민**



Time Master

하이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컴플리케이션과 클래식하고 담백한 디자인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캘린더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비셀론 콘스탄틴 FIFTYSIX®** 칼라바를 **캘린더** 지름 40mm의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의 오픈된 센터스트 효과를 더한 모노크롬 다이얼이 절제되고 우아한 멋을 선사한다. 12시 방향에 요일과 월을 표시하는 창, 6시 방향에 1백22년마다 한 번만 조정하도록 제작한, 극도의 정밀성을 갖춘 문페이즈를 장착했다. 6천만원. 문의 1877-4306 **브라이팅 프라미에르 B25** 디아라 **42** 스텔 케이스와 질러 다이얼이 조화를 이뤄 젊은 감각을 표현하며, 12시 방향에 요일과 월을 표시하는 직사각형 창, 6시 방향에 문페이즈와 날짜를 표시하는 창이 위치한다. 최대 100m 방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자체 제작 칼라바 B25로 구동한다. 1천8백37만원. 문의 02-729-4371 **IWC 포르투기저 파우렐 워치** 지름 44.2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문페이즈, 요일·날짜·달·연도 표시까지 가독성 높게 배치했다. 특히 문페이즈는 2개의 달을 대상으로 표시해 디자인에 개성을 더했으며, 7시와 9시 방향에 위치한다. 5천8백20만원. 문의 1877-4315 **브레게 클래식 캘린더 7337** 지름 39mm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 2시와 10시 방향에 자리 잡은 날짜와 요일 인디케이터를 큰 사이즈로 완성해 뛰어난 가독성이 특징이다. 또 12시 방향에 위치한 문페이즈는 현실감 있는 디자인이 매력적인 포인트로, 글리더 파우더를 포함한 블루 레커로 코팅한 문 디스크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연상시킨다. 6천2백만원대. 문의 02-3467-8335 **에거 르콜트르 라베르스 트리뷰트 듀오에이스** **캘린더** 깔끔하고 모던한 라완의 직사각형 듀얼 케이스에 투톤 컬러의 디스크를 이어붙여, 절제된 멋의 정수를 보여준다. 앞면에는 앞상형에서 자주 확인되는 시간, 분, 요일, 날짜, 월, 문페이즈를, 뒷면에는 세컨드 타임존, 날짜 창을 표시하는 인디케이터를 장착했다.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2천1백10만원. 문의 1670-1833 **블랑팡 블라야백 칼라바** **캘린더** 지름 40mm 스텔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과 블랙 인디케이터 스트랩 조합이 모던하고 심플한 멋을 전한다.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달이 보이는 6시 방향의 문페이즈와 날짜를 가리키는 블랑팡의 시그니처 블루 핸즈가 매력 포인트. 12시 방향에 요일과 월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위치한다. 2천만원대. 문의 02-3467-8426 에디터 **홍자경**

the essence of Milan

장인 정신에 기반을 둔 포멜라토의 헤리티지와 밀라노의 디자인 정신을 존중하며 포멜라토의 독보적인 스타일에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창의성의 한계를 확장해온 포멜라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빈첸조 카스탈도. 무려 20년간 브랜드와 함께해온 그의 감회와 소회를 들어보며 그가 확립한 가치와 역사를 되돌아본다.



Stylechosun(이하 SC) 한국은 처음 방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 또는 서울의 첫인상이 어떤가요? 서울의 패셔너블한 젊은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젊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패션은 놀라웠습니다. 아웃핏이나 룩이 굉장히 세련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학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오랫동안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도시인 이탈리아 밀라노와 매우 닮은 것 같습니다.

SC 토스카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루카(Lucca)의 아트 스퀘어를 시작으로 파렌체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랑고니(Marangoni Institute)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후 15년간 로메오 질리(Romeo Gigli)와 돌체앤가바나(Dolce & Gabbana)에서 근무했다고 들었어요. 그 후 단순한 패션 액세서리가 아닌 전통 있는 주얼리 하우스 포멜라토의 크리에이티브 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두 영역 간의 건극은 없었는지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패션업계에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경력을 종합해보면 주얼리 분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한 기간이 더 깁니다. 또 패션 디자인뿐 아니라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주얼리 메종의 크리에이티브리티를 디렉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디렉팅하는 것은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며 공부하는 것을 통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만 포멜라토에 합류한 이후 패션계와 가장 큰 차이를 느낀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창의성을 발휘할 때의 시차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주얼리는 패션보다 수명이 길고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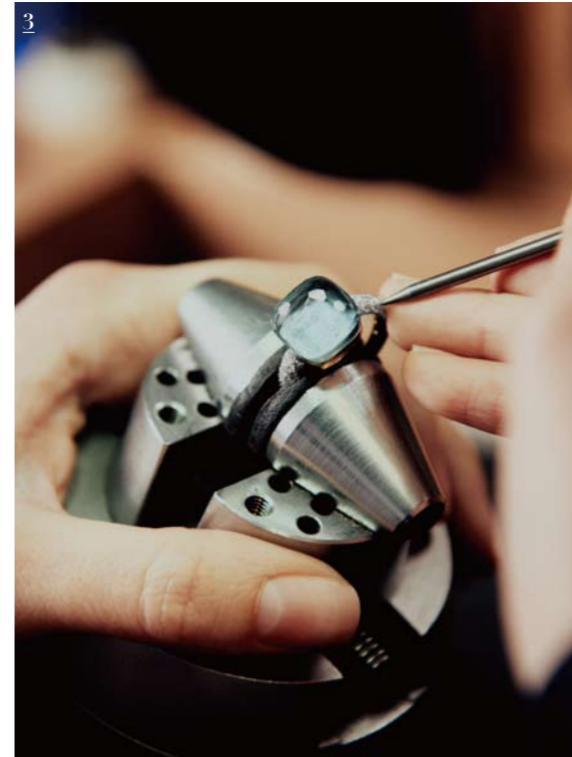
컬렉션이 평생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션은 주얼리 분야보다는 단기간에 소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컬렉션이 끝나면 다음 컬렉션을 바로 준비해야 하며, 다음 컬렉션을 시작할 때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주얼리 분야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그 컬렉션에서 가치를 뺏어나가면서 더 견고히 하는 것이 주얼리입니다. 그 때문에 컬렉션 하나를 디렉팅할 때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패션계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요소들까지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얼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SC 포멜라토에서 첫 컬렉션을 론칭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패션계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눈여겨보던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밀라노식 우아함을 이야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겼으며, 그 때문에 처음부터 포멜라토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기 전 2002년 포멜라토 크리에이티브 팀에 합류해서 약 10년간 함께한 포멜라토에서 저의 생각과 개성이 반영된 첫 컬렉션을 론칭한다는 것은 매우 감회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론칭한 컬렉션은 2017년 브랜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선보인 이코니카 컬렉션입니다.

SC 포멜라토가 탄생한 도시는 밀라노이고 디렉터님 역시 밀라노를 영감의 원천으로 선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밀라노와 포멜라토의 관계는 굉장히 심도 깊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이나 미려적인 건축물과 나란히 공존하는 밀라노의 건

축물부터 매력적입니다. 또 밀라노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줄 알며, 변화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동시에 우수한 디자인과 장인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얼리를 디자인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포멜라토의 유니크한 멀티페시 커팅, 화려한 컬러, 혁신적인 실루엣이 돋보이는 누도 컬렉션은 특히 밀라노와 많은 측면에서 닮았습니다. 또 프레타 포르테가 탄생한 도시인 밀라노의 에너지와 특별한 역동성 역시 포멜라토 주얼리의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밀라노의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는 포멜라토의 주요 컬렉션인 이코니카, 사비아,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카테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SC 특히 누도 컬렉션의 굉장히 컬러풀하고 다채로운 면모가 밀라노라는 도시의 다양성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누도 컬렉션의 경우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선보이며, 컬러 팔레트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컬러감과 다채로운 팔레트는 밀라노의 우아함과 밀라노 사람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 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각자의 개성에 맞는 룩을 만들어내는 밀라노 사람들은 누도의 컬러 팔레트 내에서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룩을 개성에 맞게 표현할 수 있죠. 그뿐 아니라 단독으로 착용하는



1 포멜라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빈첸조 카스탈도(Vincenzo Castaldo). 2 컬러감과 볼륨감이 돋보이는 포멜라토 대표 이코니카 컬렉션 링. 3 포멜라토 누도 컬렉션 제작 모습. 4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의 포멜라토 정스톤. 5 주얼리가 탄생하는 가장 첫 과정인 스케치. 6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문스톤과 블루 사피아의 이코니카 컬렉션 네크리스.

것은 물론 여러 개의 링을 다양하게 레이어링해서 연출하기도 매우 훌륭합니다.

SC 2020년에는 하이 주얼리의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이 주얼리는 좀 더 고감도의 영감과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지요. 영감을 얻는 부분은 매우 많습니다. 자연뿐 아니라 사물, 인물, 특별했던 경험과 여정까지. 특히 하이 주얼리의 경우는 창의력이나 자유의 한계가 파인 주얼리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이나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분위기 혹은 감정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영감을 떠올립니다.

SC 포멜라토 하이 주얼리만의 차별성이 있다면요? 하이 주얼

리를 포함해 포멜라토의 모든 주얼리는 단순히 형태나 스톤의 질뿐 아니라 착용할 때의 감각과 편안함까지 고려해서 제작됩니다. 이 점이 현재 포멜라토가 다른 주얼리 브랜드들과 차별화되는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포멜라토의 주얼리 형태를 고려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둥근 형태와 볼륨감입니다. 그 이유는 주얼리는 여성의 피부에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며, 매일 친구로 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얼리와 착용자의 정서적인 교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션보다 더 센터멘털하고 애착을 가지는 물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착용할 때의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석을 만들 때 느껴지는 센슈얼한 느낌까지요.



보석이 여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주얼리를 디자인하고 제작합니다.

SC 볼륨감과 착용감은 주얼리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포멜라토만의 핵심 역량이 있을까요? 포멜라토의 모든 주얼리가 수작업으로 제작되기에 두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포멜라토 메종 장인들은 뛰어난 착용감과 볼륨감을 위해 직접 주얼리를 핸드메이드로 제작하면서 이를 끊임없이 체크합니다. 그 때문에 포멜라토 주얼리를 만졌을 때 아주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부드러움'과 '곡선'입니다. 아무리 작은 주얼리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컬렉션을 론칭할 때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방향성입니다. 이러한 부드러움과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얼리 디자인은 물론 원석 고유의 곡률을 고려해 커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프로젝트가 컬렉션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지켜봐왔습니다. 볼드하고 유니크한 스타일의 이코니카, 포멜라토의 정수인 감각적이고 조화로우며 격조 높은 아름다움을 지닌 카테네, 불규칙적인 다이아몬드 파베로 포멜라토의 대단한 상상력을 실현한 사비아까지. 이 모든 컬렉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핸드메이드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규칙을 잘 알지만 아름다움을 위해 이 규칙을 거부하는 길을 택한 덕분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용기가 저희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멜라토의 정수인 동시에 밀라노의 정수입니다.

SC 포멜라토 주얼리 컬렉션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컬렉션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처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작업하고 탄생시킨 이코니카 컬렉션을 꼽고 싶습니다. 밀라노의 골드 세공 전통을 가장 잘 대표하는 컬렉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포멜라토가 늘 추구하는 볼륨감, 착용감, 그리고 센슈얼리티를 모두 녹여냈죠.

SC 포멜라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포멜라토가 한국인들과 한국 시장의 취향에 부합할 것이라고 여기시지요? 그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미적인 것에 관심이 매우 많은 듯 보입니다. 또 무언가 새롭고 자신을 매번 놀라게 해주는 데 관심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포멜라토는 다양성과 혁신성 면에서 한국 여성들의 취향과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탈리아 장인 정신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 역시 한몫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의 02-6905-3342 **에터 서양민**

Spring Field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매력, 2023 봄여름 레이디 골프 웨어.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오렌지 컬러 알라트 라운드 넥 버튼다운 스웨터 59만원, 화이트 컬러의 알라트 베이스트라이더 23만원, 블랙 컬러 알라트 플라자카트 47만원, 블랙 컬러 트레이스 슈즈 65만원, 블랙 컬러 블랙 알라트 나사스 5만원, 화이트 알라트 메쉬 플라이어 한 손 장갑 6만원 모두 **파레티**.

(왼쪽) 타라모 우븐 배색 풀 집업 스웨터 58만원, 화이트 컬러의 알라트 베이스트라이더 23만원, 블랙 시보나 버클 카고 쿼트 43만원, 화이트 컬러 맥레인 슈즈 66만원, 블랙 컬러 블랙 알라트 나사스 5만원, 화이트 알라트 메쉬 플라이어 한 손 장갑 6만원, 블랙 컬러 로고 소프트 화이트 햇 15만원, 레오 디스 트롤리 캐디백 1백30만원 모두 **파레티**. (오른쪽) 화이트 타라모 후디 반스메 스웨터 52만원, 그린 시보나 플라즈 쿼트 45만원, 화이트 컬러 트레이스 슈즈 66만원, 그린 컬러 블랙 알라트 나사스 5만원, 그린 컬러 반양피 한 손 장갑 7만원 모두 **파레티**.



(왼쪽) 블루 칼라 케이 블 레이온 & 폴리 소재의 니트 라운드 스웨터 35만8천원, 화이트 칼라의 니트 소재 플레어 스커트 33만8천원 모두 **같은데이**, 화이트 칼라의 피케 셔츠 가격 미정
엘로드, 블루 칼라의 투웨이 장갑 7천3천원 38만원 **크리브나인**, 블랙 칼라 블랙 엘리트 나사스 5만원 **파라디**, 화이트 칼라의 골프 글러브 가격 미정 **발라스티**, (오른쪽) 화이트 칼라의 레더 포인트 이노라 33만8천원 **같은데이**, 화이트 칼라의 폴오버 가격 미정 **에트베스**, 블루 칼라의 플리츠 스커트 36만3천원 **크리브나인**, 그린 칼라 블랙 엘리트 나사스 5만원 **파라디**, 화이트 칼라의 골프 글러브 가격 미정 **발라스티**.



화이트 칼라 코트 플로 스웨터 셔츠 2백25만원
마유미유, 블루 칼라의 케이 블 레이온 & 폴리 소재의 니트 라운드 스웨터 35만8천원,
 브라운 칼라 비건 레더 셔츠 37만8천원,
 핑크 칼라의 아이언 가격 미정 모두 **같은데이**,
 브라운 칼라 베리 비버에 스니커즈 2백14만원,
 화이트 스스 가격 미정 모두 **로저 비비에**,
 핑크 칼라 반양피 한 손 장갑 7만원 **파라디**,
 블루 칼라 마이 크로 미니 백 42만2천원 **크스넷**.



베이지 컬러 아우터 가격 미정 미유미유,
 블랙 컬러 패턴 파케 셔츠 가격 미정, 블랙 컬러
 바티컬 린 스웨터 스카트 45만원, 블랙 컬러
 나삭스 가격 미정, 네비 컬러 바이저 가격 미정,
 블랙 컬러의 자수 장식 레더 캐디 백 가격 미정
 모두 **엘로드**인 골프, 핑크 컬러 베리 바비에,
 스니커즈 2백14만원 **로저 바비에**, 화이트 컬러의
 골프 글러브 가격 미정 **발리 스틱**.



(왼쪽) 네비 컬러 파케 셔츠 35만원, 그린 컬러 아가일 니트 스카트 35만원, 그린 컬러 토트백, 화이트 컬러 골프 글러브 가격 미정 모두 **엘로드**, (오른쪽) 그린 컬러 아가일 파케 셔츠 35만원, 그린 플리츠 스카트 가격 미정, 화이트 컬러 골프 글러브 가격 미정 모두 **엘로드**, 핑크 컬러 베리 바비에 스니커즈 2백14만원, 화이트 셔츠 가격 미정 모두 **로저 바비에**.



(왼쪽) 나이비 컬러 스트라이프 프레미 폴오버 1928천원, 데님 라바 스카츠 2328천원, 핑크 컬러의 마이크로 미니 백 422천원 모두 **르 쏘넷**, 화이트 컬러 바비 바비에 스니커스 2백14천원, 화이트 상스 가격미정 모두 **로저 바비에**, 화이트 타이프 포인트 바킷햇 1328천원 **빌라스틱**, (오른쪽) 레드 컬러 스트라이프 프레미 폴오버 1928천원, 화이트 컬러 레트로 무드 쇼츠 1228천원 모두 **르 쏘넷**.



민트 컬러 라바시블 다운 재킷 728천원, 패턴 프린트 골프 글러브 728천원 모두 **혼가먼트**, 레트로 자카르 롱 니트 3528천원, 하이 웨이스트 플리츠스카츠 3528천원 모두 **크리브나인**, 화이트 컬러 플로우 러너 952천원 **로아에**, 그린 컬러 블랙 얼라트 니스스 522천원 **파우더**, 그린 컬러 볼 케이스 토트백 3528천원 **엘로드**.

헤어 **강민정**
 메이크업 **김도현**
 모델 **Fedorova Anastasia, Anna Pavlova(Whozthat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파레티 1533-1631
 캄루웨이 02-3218-7400(골프웨어, 02-3218-1900(골프용품))
 크리브나인 02-577-3146
 빌라스틱 070-7533-6890
 르 쏘넷 070-8865-5091
 필립 블라인 골프 1644-4490
 엘로드 1588-7667
 혼가먼트 02-2015-6000
 에르메스 02-542-6622
 마우 마우 02-541-7443
 로저 바비에 02-6905-3370



The Unique

력서리한 이미지와 헤리티지를 갖춘 대표적인 귀족 스포츠, 골프, 최고급 수입 원단을 사용해 소량 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세련된 하이 퀄리티 골프 웨어를 지향하는 브랜드 피레티를 소개한다.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골프 웨어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려면 익히 알고 있을 피레티. 세계 3대 수제 퍼터로 유명한 브랜드다. 미국의 클라이브 신수였던 마이크 존슨이 골프를 접한 지 6개월 만에 싱글 플레이어가 되면서 골퍼에 큰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직접 수제 퍼터를 제작하면서 피레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가 만든 퍼터는 곧 필드 위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펼쳐면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이후 PGA 투어 프로들의 필드 테스트를 통해 기능과 품질을 높이는 과정을 거쳐면서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이로써 프리미엄 퍼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마이크 존슨은 신세대 퍼터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피레티는 이러한 퍼터의 명성과 장인 정신을 이어 받아, 직년부터 하이엔드급 골프 웨어 컬렉션을 선보였다. 감도 높은 컬러와 메탈릭 소재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트렌디하고 고급스러운 컬렉션으로 출시와 동시에 많은 골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최근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골프복을 제작할 때 오리지널리티와 젊은 감각에만 집중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피레티는 한시적 유행을 좇아보려는 고우의 우아하고 유니크한 핏을 고집하면서 그동안의 헤리티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감각적인 소수의 골퍼가 피레티에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프레스티지 정신을 계승하는 브랜드답게 엄선된 최고급 수입 소재와 원단만을 사용해 국내에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최상의 퀄리티를 실현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유럽 귀족의 복사에서 영감을 받은 유니크한 로고는 전체적인 룩에 포인트가 된다. 아트 갤러리 콘셉트의 피레티 도산 플래그십을 방문하면 직접 프리미엄 퀄리티를 경험하고 감각적인 쇼핑 환경을 즐길 수 있다. 문의 1644-7781 에디터 윤자경



1 활동성과 여성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드롭 슬러 실루엣의 테리모 후디 반팔 스웨터 52만원. 2 피레티 고유 로고 프린트가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알라트 플리츠 쿼터 49만원. 3 컬러 리본 장식으로 스윙 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알라트 컬러 리본 섀rts 15만원. 4 레터링과 프린트 디테일을 적용한 알라트 메쉬 플러이어 한 손 장갑 6만원. 5 라운드와 인상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라운드 화이트 톱 핸들 백 29만원. 6 포인트 아이 캡으로 착용 가능한 에센셜 컬러 폴 윈들케이스 13만원. 7 와펜 장식 포인트가 들어간 사랑스러운 컬러감의 컬러 블랙 알라트 니스츠 5만원. 8 슬림한 라인과 메탈 장식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트롤리 타입의 레디스 트롤리 캐디백 1백30만원. 모두 피레티.



(왼쪽부터 차례대로) 1988년 안다 페라기모를 위해 만든 핸드백을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막시밀리안 재해스워 만든 라인으로, 각진 세이프가 매력적인 송이자주 소재의 안다 백 가격 미정 **페라기모**. 문의 02-3430-7854. 호색하게 질박한 알코와 앵클 스트랩이 매력적인 카프 스킨 소재의 카트 트리아공포 스트랩 캠프스 1백만원대 **살만트**. 문의 1577-6841

(왼쪽부터 차례대로) 램 스킨 소재에 브랜드 특유의 인트러지오 우잉을 더해 독특한 무드를 자아내는 트라카린 컬러의 알피 울 2백만원대 **보타가 베라타**. 문의 02-511-3935. 여러 개의 사각 패슬에 정교하게 커팅한 울로 가죽 스트랩을 꿰어 연결하는 공법을 사용해 가장 전체에 이음매가 없는 독특한 디자인의 카프 스킨 소재 모자이크 다이아 백 가격 미정 **토즈**. 문의 02-3438-6008



2023

New Arrivals

S/S 시즌이 되면 기다려지는 신상 백과 슈즈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차례대로) 스트라스와 그로그렘 소재로 반짝임을 더한 슬라백, 코릴 컬러의 트워드 소재에 램 스킨과 골드 메탈로 스트랩과 버클을 장식한 톱 핸들 미니 플럼 백 모두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60-805-9628, chanel.com

(왼쪽부터 차례대로) 클래식한 남성 로퍼에서 영감을 받은 모던한 디자인에 송아 헤리티지를 보여주는 스텔럼 버클 디테일을 가미한 카프-스웨이드 소재 오드리 웰링턴 로퍼 90만원대 **발프 로빈 캄백션**. 문의 02-3467-6560. 시그니처 디자인의 미디엄 레이디 디-라이트 백으로, 내추럴한 베이직 컬러에 플라워 패턴을 더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했다.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280-0104 에디터 **성상민**





Lights ON

새봄을 맞이해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줄 빛나는 아이템, 조명.

1 벽에 기대어 세워두는 것으로도 조명과 오브제 역할을 동시에 하는, 독특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이 특별한 분위기를 더하는 비리트 가격 미정 **클레시용 피르타발라에코 by 인피니**, 문의 02-3447-6000 2 상세하게 조각한 투명 크리스탈 스탠드에 크롬 플레이트와 플로스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LED 에지 라이팅을 세련한 봉주로 베르사유 램프 라지 사이즈 3색30만원 **바피라**, 문의 02-3448-3778 3 블루·페일 로즈·피치 컬러의 조합이 돋보이며, 현대적이면서도 시공스러운 느낌을 지어내는 pH 5 가격 미정 **쿠이스 플렌**, 문의 02-6462-6262 4 인체의 팔을 재현해 제작한 램프의 관찰이 뛰어난 내구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 이용에도 빛의 떨림이 없고 광량이 일정해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아몰레드 LED 스탠드 가격 미정 **리본**, 문의 1600-1547 5 편드와 스탠드, 두 가지로 활용 가능한 조명으로 감각적인 그린 컬러가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어줄 아크스 셰이드 씨 그린 38만원 **헤이 by 이노베이션**, 문의 02-3463-7752 6 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으며, 사각형 틀 안에 위치한 360도 회전하는 원의 각도를 조절해 조도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문세터 가격 미정 **쿠이스플렌**, 문의 02-6462-6262 7 LED 기종 조명이 빛을 굴절시켜 공간에 따스한 느낌을 주며, 이탈리아 무리노(Murano) 지역 유리공예 장인 고유의 수작업 블로잉 방식으로 제작한 총 다섯 가지 컬러의 유리 불을 다룬 토털 조명 가격 미정 **쿠이 비통**, 문의 02-3432-1854 8, 9 벌집 모양의 기하학적 패턴이 불을 밝힐 때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편드 가격 미정 **쿠이 비통**, 10 뛰어난 중 모양의 실루엣으로 부드러운 빛이 고급스럽게 퍼져나가 낭만적인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벨라 가격 미정 **리본**, 문의 1600-1547 11 빛의 움직임으로 빛의 방향을 다각도로 조절할 수 있고, 클래식한 느낌을 전하는 엘티 라이트 테이블 램프 브라스 1백19만원대 **구비 by 이노베이션**, 문의 3463-7752 에디터 **윤자경**

봄의 문턱에서 만나는 뉴 퍼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Magical Fragrance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퍼퓸 드 밀리 **벨리아 오 드 퍼퓸**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선사하는 오렌지 꽃과 만다린 향을 시작으로 마스코, 고급스러운 우드, 그리고 바닐라 향이 부드러운 하모니를 이뤄 세련되면서도 여성스러운 향을 완성한다. 75ml 가격 미정. 문의 02-3444-2203

엔트루두 베르트 그레즈 오 드 퍼퓸 강렬한 오우드와 묵직한 레더 향이 조화를 이루어, 화이트 마스코 향이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향기로 남녀 모두에게 추천한다. 특히 사니몬의 스파이시한 진향이 오래도록 감돈다. 50ml 15만원. 문의 1533-1394

발롱 저스트 발롱 성숙한 여성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향인 만큼 모던하고 강인한 누앙스를 자랐다. 새벽녘 투명한 이슬이 맺힌 공기들을 연상시키는 플로럴 계열의 톱 노트와 자연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흙 내음, 부드러운 가죽을 연상시키는 베이스 노트가 조화를 이룬다. 100ml 38만원. 문의 070-4352-5203

에타 리브르 도랑류 유 오이 썬리 라이크 유 EDP LA 여성을 생각하면서 만든 시트러스와 이모이티 계열의 향기로, 자유분방하면서도 톡톡 튀는 느낌을 준다. 톱 노트는 민트로, 처음 향을 맡았을 때 상쾌한 기분을 전하고 미들 노트의 들꽃, 베이스 노트의 장미가 발랄한 이미지를 남긴다. 100ml 21만원. 문의 02-3444-2103

랑세 1795 프랑수와 힐스 스파이시 노트의 풍부함과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는 향. 베르가모트와 멜론의 톱 노트로 경쾌하게 시작해 샌들우드와 카리파엘, 마스코의 베이스 노트로 묵직하게 이어진다. 미들 노트는 플로럴 계열을 사용해 초창기의 평화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진원이 된다. 100ml 1928천원. 문의 070-8680-2231

리본라이트 오일미네랄 탠트리코 이탤리아의 니치 퍼퓸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퍼퓸답게 모던하고 시트러스 느낌의 첫인상이 특징이다. 벨벳이 샌들우드와 아로마틱 노트를 매칭해 자유분방과 관능미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 특색 있는 향을 자랑한다. 100ml 22만원. 문의 080-990-8989 에디터 **윤자경**

이슈에 대해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EARRINGS AND COCO BRACELETS IN BEIGE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CHANEL

FINE JEWELRY